

수필이 있는 풍경 사진



권영주
히트 스캔 심장내과 원장
순천향의대 명예교수



저녁노을

해 넘어가는 그곳엔 자연이 연출하는 아름답고 장대한 노을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드넓은 한강은 폭넓고 유수한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곳 풍경은 해 넘어가는 일몰과 저녁노을은 서울 명품 풍경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부터 모두들 사랑스럽고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하는 풍경은 초보나 오랜 사진가들에게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멋진 장면은 일 년에 몇 번이 될까 말까 하지요. 1시간 넘게 기다려서 하늘에서 펼쳐지는 색채화의 비경에 모두들 함께 숨죽이면서 무아지경에 취해 오랫동안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담은 카메라가 소중할 때입니다. 모두들 한가득 자연을 담은 마음은 풍요로움입니다.







가을은행나무

파란하늘 속에 후둑 솟은 가을 은행나무 천년고찰인 안동 봉정사에 드리워진 거대한 은행나무는 샛노란 빛으로 물든 은행잎을 품고 있으면서, 가을의 전형적인 모습과 티끌하나 없는 자비롭고 위엄 있고 깨끗한 모습이 담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봉정사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인 단아한 극락전이 있으며 절 이름이 말하듯 봉황이 머무는 형상입니다.

인간이 만든 오랜 역사의 소중한 흔적과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진리의 세계를 범부들은 알고 있는지 마음속에서 잔잔한 마음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니다.